

시연施連의 현조실록 험험祖實錄探險

조선왕조실록에 50여 차례나 기록된 세자사부(世子師父) 겸 병마절도사 휘諱 맹경孟慶(18세)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조선을 이끌었던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도 아니요. 정종삼사품(正從三四品) 관리가 무려 50차례에 걸쳐 그의 행장, 벼슬살이 사료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사실은 흔치 않다.

성품이 온유했던 부친(父親, 문경공文景公)과는 달리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흔적이 실록 곳곳에서 나타났다.

태종(太宗) 세종(世宗) 문종(文宗)까지 세 임금을 섬긴 병사공(兵使公) 휘諱 맹경(孟慶)은 세종 임금 때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軫)의 삼자(三子) 가운데 막이로 태어났다.

부친 문경공(文景公)이 고려 공민왕(恭愍王) 6년(1357)에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의 삼자(三子)로 태어나 고려 우왕 3년(1377) 병과(丙科)에 급제하신 연보(年譜)를 참고하면 1577년 이후 안동(安東) 동문(東門) 박 송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무후.

반면 병사공(兵使公, 휘諱 맹경孟慶)의 출사(出仕) 이력(履歷)은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부친 문경공(文景公)보다 더 화려하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엔 태종(太宗) 11년(1411) 12월 1일 직장(直長)에서 물려난 사실이 첫 기록이고 보면 그 이전부터 조선 육조(六曹)에서 벼슬살이를 했다.

세종실록(世宗實錄)부터 기록이 쏟아졌다.

세종 13년(1431) 1월에 한성부(漢城府) 소윤(少尹)으로 있을 때 관리를 잘못 추천한 죄로 속장(贊成), 죄를 면죄 받음을 받은 사실이, 세종 15년(1432) 5월 2일에는 건주위(建州衛) 경력(經歷) 때 승전보를 조정에 빠르게 알려 상(賞)을 받은 기록이, 그해 6월엔 판내사사(判內資寺事)가 되고 세종 22년(1440) 1월 16일 자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가 됐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교지를 받은 6개월 뒤에는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승차한다. 세종 23년(1441) 3월 27일 판의주목사(判義州牧使, 正三品 外職 文官)가 되어서 외직으로 나갔다가 3년 만에 세자서연(世子書筵,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의하는 자리)으로 경직(중앙정부의 자리)에 돌아왔다. 종주원사

세종 28년(1446) 6월 6일 동지중추원사(同知

中樞院事)에, 다음 해 1월 공조참판(工曹參判, 정이품正二品)에 오른다. 공조참판(工曹參判) 4개월 만에 경상좌도절제사(慶尚左道都節制使)로 승차해서 외직으로 다시 나간다. 세종 31년(1449) 5월 22일 이전 자리였던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임명되고 10월 16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겸 정조사(正朝使)로 북경(北京)에서 환국(還國), 세종에게 복명(復命)한 사실이 기록됐다.

병사공(兵使公)의 벼슬살이는 태종에서 세종을 거쳐 문종(文宗) 임금까지 이어진다. 문종 임금 즉위(即位)년인 1450년 4월 6일 자 실록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그리고 7월 6일 전라도수군처치사(全羅道水軍處置使)로 다녀온 사이 사헌부판핵(司憲府彈劾)을 받고 1451년 4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체직(遞職) 된다.

문종 2년(1452) 2월 26일엔 모든 직첩(職帖)이 삭제(削除)되는 기사가 실렸다.

병사공(兵使公)은 단종(端宗) 2년(1454) 2월 19일 삭제되었던 모든 직첩이 환급(還給)된 내용이 실록에 실린 것이 마지막으로 더는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즈음 병사공(兵使公)의 나이는 77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 이 시기에 서세(逝世)로 부침(浮沈)이 잦았던 공의 생애(生涯)도 같이 끝나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공(公)의 휘(諱, 이름)가 가장 많이 등장했던 생애(生涯) 역시 급제에서부터 관직에 오른 시기, 단학, 복직, 승급, 그리고 직책에서 비롯되는 사건 사고로 연관되는 사대부(士大夫)의 삶을 사셨지만 생명(生命)의 근이 끊기면 같이 사라지는 게 세상사의 순리.

역사의 흐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이 없으면 이승의 영육(榮辱)이 아무리 화려했던들 그 행장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병사공(兵使公,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줄임말(기록에서도 증명됐다.

묘소 묘갈도 찾을 수 없으니 생몰년(生沒年)을 알 수 없을뿐더러 세자서연(世子書筵,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의하는 자리)관이 가졌던 심오한 학문적 세계도 알 수 없다. 문집(文集) 한권이 전해지지 않는 것 역시 보존 계승할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후손이 끊기면 학문이 산두지필(山頭之筆)이라도 후세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조선에선 유독 심했다.

병사공(兵使公, 휘 휘경孟慶)의 동생이 신군수공(郡守公 휘 휘경孟慶) 역시 같은 처지다. 손자 대에 가서 대가 끊어져 버려 문을 닫아버렸으니 죽보에 이름만 옮겨졌을 뿐이다.

〈자료출처: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안동 권씨세보 安東權氏大同世譜,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횡성 각립사와 태종대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현문연구소

에 있는 교회부터 남쪽에 있는 면사무소까지 절의 유적이 나왔다고 한다. 면사무소에 들르니 직원이 건물 뒤 산기슭에 암자가 있었다고 가리킨다. 면사무소와 우체국 사이의 밭고랑을 자세히 보니 와편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축대 틈에도 와편이 보인다. 텁은 사라지고 와편과 전설만이 각립사의 역사를 알려준다.

태종이 공부하던 각립사를 떠나 태종대로 향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구소(老嫗沼)마을이다. 태종이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이곳에 왔을 때, 원천석은 미리 알고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한다. 잠시 후에 태종이 오자 노파는 원천석의 말대로 길을 반대로 가르쳐 주었고 태종 일행이 길을 떠나자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물에 빠져 죽었다. 노구(老嫗)는 노파란 뜻이고 소(沼)는 연못이다. 깊은 안내관 옆으로 깊은 철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커다란 바위가 깊은 물에 뿐리를 박고 있다. 바위엔 구연(鳩淵)이라 새겨져 있다.

치악산 방향으로 길을 나선다. 왼쪽으로 조그만 비각이 보인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태종대'라 현판을 달았다. 원천석과 태종의 인연을 이야기해주는 역사의 현장이다. 원천석은 피비린내 나는 권리 다툼에 회의를 느끼 관직을 거부하고 치악산 아래에 은거하였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원천석을 찾아왔으나 원천석은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한다. 태종이 이곳에 도착하여 빨래하는 노파에게 운곡이 간 곳을 물었으나 노파는 운곡이 일러 준 대로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0>



권현 편집위원장

〈청대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文臣)이자 학자인 청대 권상일(權相一, 1679~1759) 공의 시문집으로, 원집 16권 8책, 연보 2권 1책으로 총 18권 9책으로 되어 있다.

공은 부정공파(副正公派)로 시조후 28세(世)이며, 자는 태중(台仲)이고 호가 청대이다. 부친은 증이조판서 관심(權深)이며, 모친은 경주이씨로 부사 이달의(李達意)의 딸이다.

공은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세에 옛사람들의 독서하는 법과 수신하는 방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저술하였다. 32세 때인 1710년(숙종 36) 증광문과에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다. 이어 저자·전적·직강·예조좌랑·병조좌랑을 지냈다.

1727년(영조 3)에는 만경현령(萬傾縣令)이 되어 이듬해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사전에 탐지해 영문(營門)에 보고하고, 난을 토벌해 공을 세웠다. 1731년 영암군수와 사헌부장령을 지내고, 1733년 양산군수·군자감정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같은 해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을 교열해 간행하고, 이듬해 상소하여 민폐근절과 관기숙정방안을 건의했다. 흥문관의 계정에 의해 경연에 참석해 소신을 진술했다. 그해 울산부사가 되어 춘추관 편수관을 겸임하고, 구강서원(鷺江書院)을 창립해 학문을 전통시켰으며, 공자 후손인 공씨(孔氏)에게는 군역을 면제하는 등 선치(善治)하였다.

1741년에 시강원 필선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745년 봉상시정을 역임하고, 이후로 사헌부현납·사간원사성·사헌부집의·동부승지·형조참의·우부승지·대사간·판결사(判決事)·흥문관부제학·한성좌윤·지종주부사·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공은 벼슬하는 동안 관직에 뜻이 없어 사직(辭職) 상소를 여러 번 올리기도 하였다.

사후에 희정(僖靖)이라는 시호(謚號)가 내려졌으며, 죽임정사(竹林精舍)·근암서원(近菴書院)에 향사(享祀)되었다.

공의 〈연보(年譜)〉와 〈행장(行狀)〉 등에 의하면, 공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가학(家學)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교 경전과 여러 성리서(性理書)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초학지남(初學指南)〉, 〈관서록(觀書錄)〉,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소대비고(昭代備考)〉, 〈가법(家範)〉, 〈역대사초(歷代史抄)〉, 〈상목시문집자(常目詩文雜著)〉, 〈일기(日記)〉 등 수십여 권을 저술하였다.

사후에 후손들이 이상정(李象靖), 채재공(蔡濟恭), 정범조(丁範祖)로부터 각각 행장, 시장(謚狀), 신도비명 등 묘도(墓道) 문자를 받아 문집 간행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1796년에 문인 조석월(趙錫月)과 증손 권준(權浚)이 글씨를 옮기면서 〈청대집〉이 완성되었다.

그는, 종질 권후(權輝) 등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초고(草稿)를 바탕으로 더욱 수집하고 편찬(編次)하여, 1797년의 교정(校正)에 참여했던 정종로(鄭宗魯, 1738~1816)에게서 서문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공이 1749년에 편찬한 상주(尚州)의 읍지(邑誌)인 〈상산지(商山誌)〉는 1929년에 7권 3책으로 인쇄되었고, 또한 〈초학지남〉 1책은 1932년에 인쇄되었다.

공이 20세부터 시작하여 81세로 작고하기 전 10일까지 쓴 30권의 일기는 200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집하여 〈청대일기(淸臺日記)〉로 간행되었는데, 공의 관직생활과 일상생활의 면모 및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또한 1749년에 편찬한 울산의 읍지인 〈학성지(鶴城誌)〉 초고본은 2010년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청대집〉의 제15권~제16권에 실려 있는 〈관서록(觀書錄)〉은 공이 다양한 책을 읽은 뒤에 생각한 것과 사실들을 기록한 것으로, 내용은 경전(經傳), 성리서(性理書)를 비롯하여 태극(太極), 음양(陰陽), 오행(五行) 등에 관한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의 설, 〈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 〈근사록(近思錄)〉, 퇴계 이황(李滉), 농암 김창협(金昌協), 성호 이익(李瀨), 식신 이만부(李萬敷) 등의 글들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로써 공의 박학(博學)을 알 수 있겠다.

다음은 〈청대집〉 제1권의 첫 번째 시(詩)로 공이 31세[1709년]에 지었으며 제목은 〈기축년 그믐날 저녁에 느낌을 적다[己丑歲除日書感]〉이다.

光陰不待又新春枉用工夫愧古人

喫緊湯盤三字語(끽긴탕반삼자어)

從今日日檢吾身(종금일일검오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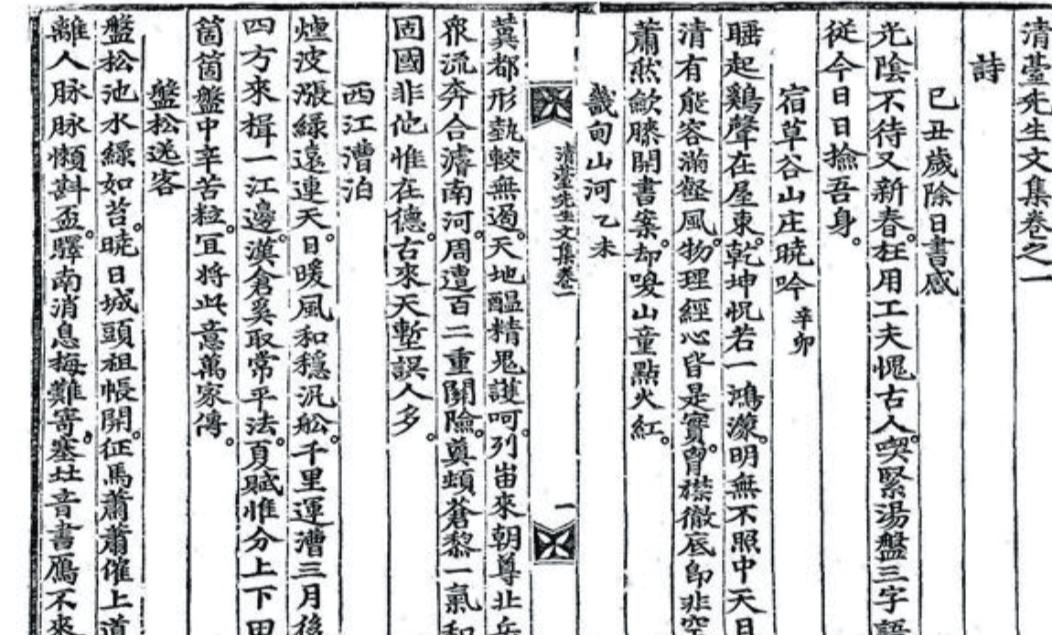
세월은 날 기다려주지 않아 또 새봄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 공부하니 옛사람께 부끄럽네

가장 긴요한 것은 탕임금 우일신 석자이니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야겠네

은(殷)나라 탕(湯)임금은 세속대야에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로워지며 또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日新, 日日新, 又日新]”라는 글귀를 새겨놓고 날마다 자신을 경계하였다고 한다. 오늘이 마침 설날이다.



거짓으로 알려준다. 태종은 바위에서 기다리다 스승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뒤에 사람들은 그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 불렀다. 비각이 있는 절벽 아래 암벽에 태종대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다. 이익의 『성호사설』은 태종대를 태종이 등극하기 이전에 책을 끼고 다니며 휴식하던 곳이라 전해준다. 미수 허목은 같은 듯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태종이 동쪽 지방을 순행할 적에 스승의 집에 거동하였으나, 피하여 만나 주지 않았다. 시냇가 바위 위로 내려가 집을 지키는 노파를 불러 상을 후하게 내리고, 아들인 형(洞)에게 벼슬을 주어 기천감무(基川監務)로 삼는다. 이기(李壁)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태종이 즉위하자 역말을 보내 공의 안부를 물으니 죽은 지 벌써 오래였고, 공의 아들 원통(元侗)을 특별히 기천현감(基川縣監)에 제수하였다. 적었다.

홍경모는 「주필대기(駐蹕臺記)」에서 처음에는 태종대였다가 영조 때 주필대(駐蹕臺)로 고쳤다고 적는다. 주필(駐蹕)은 임금이 행차하다가 잠시 머물고 멈춰거나 묵거나 묵던 일을 뜻한다. 이유원은 「태종대」란 항목에서 원천석과 태종에 얹힌 이야기를 전해준다. 태종대로 널리 알려진 이곳은 주필대라고 불렸다. 비각 안을 들여다보니 비석에 주필대

